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전북서 열려

10개국 관광부 차관·청장 등 참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도약과 변환’ 주제 국제협력 논의

‘제4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가 지난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 세계 관광 정책 수립을 이끄는 10여 개국의 관광부 차관 및 청장, UN Tourism,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등 국제기구 인사, 국내 관광 전문가 및 종사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도약과 변환’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전북 고유의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까지 연계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전북 관광의 매력과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컨퍼런스는 신연성 국제관광인포럼 국제담당 부회장의 사회로 유진룡 국제관광인포럼 회장의 개회사,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기조 발표에는 △누르 아마드 하미드 PATA CEO가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전략’ △다툽 서베스천 텅 추 이우 시라와 말레이시아 관광부 차관이 ‘시라와 관광의 변



‘제4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가 지난 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화와 미래’ △서병로 건국대 교수가 ‘전북 미식관광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국제적 전략과 지역 특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왕순화 싱가포르 관광관리연구소 명예 이사장, 응우옌 트롱 칸 베트남 관광청장, JNTO(일본정부관광국) 이사장 대리, 튜인령 전주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회와 도전, 성공적인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적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열린 ‘전북 미식체험 행사’는 14개 시·군의 대표 음식을 기반으로 구성,

참가자들에게 오감으로 전북의 맛과 정체성을 체험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비빔밥, 박대짬, 흑돼지수육 등 전북 고유의 향토음식을 즐기며 전북이 지닌 미식문화의 풍부함과 정체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관광은 단순한 소비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생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북이 미식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완주 신진규 작가, 전북 공예품 대전 대상

‘단차의 조화-오단 찻상 세트’ 소목 기술 현대적 감각 재해석

완주군 무형유산 전주 장학생 신진규 작가가 제48회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 대전에서 ‘단차의 조화-오단 찻상 세트’로 대상을 수상했다. 신 작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천철석 소목장(완주군 구이면)에게 전통 목공예 기술을 배우며, 소목 기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집중해 왔다.

특히, 정교한 목재 접합과 섬세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의 작품은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람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대상작 ‘단차의 조화-오단 찻상 세트’는 36년간 교사로 재직해 작가의 체육 시간에 사용했던 ‘뿔’의 단차에서 영감을 받아 다섯 단계로 구성된 찻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각 단의 미세한 높이 차이를 통해 입체감과 리듬감을



살린 조화롭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작가는 수상 소감을 통해 “천철석 소목장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받은 가르침과 전통 공예에 대한 애정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 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정읍시, 백제 중방문화권 핵심 유적

정읍시가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나서며, 백제 마한문화권 복원과 지역 역사 자산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km 구역에 분포된 270여 기의 고분 중, 은선리(영원)와 도계리(덕천)에 집중된 황혈식 석실분 56기를 중심으로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해당 고분군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시굴·발굴조사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삼국시대 백제 고분 20기를 새롭게 확인했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금제구슬(金製玉), 금제반지(金製半環) 등 고급 장신구가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백제 웅진기 주요 고분에서 확인되는 수준 높은 유물로, 당시 지방통치체계 및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엔 출토된 주요 유물을 오는 6월 26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정읍의 마한·백제문화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시는 2026년까지 구역별 정밀 조사를 완료한 뒤, 2027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3개년에 걸친 복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백제 중방문화의 중심을 밝힐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유적”이라며 “연차적 발굴을 통해 정읍 고대사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도시를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 호남문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위치한 호남문고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문학,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 문학 상주 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호남문고는 해당 사업에 선정돼, 올해 5월부터 시인 김성철을 상주 작가로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시시詩詩詩한, 시 창작 수업 1’이다. 오는 6월 14일부터 시작

되며, 시에 관심 있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상상하고, 공감하고, 엉뚱한 시 쓰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후 8월부터는 심화 과정인 ‘시 창작 수업 2’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독서클럽 ‘시시각각’도 6월 21일부터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2주에 한 권의 시집을 읽고, ‘내가 찾은 나의 시’, ‘나를 위로하는 시’ 등의 주제로 감상을 자유롭게 나누게 된다.

총 10권의 시집을 함께 읽으며, 시를 통해 나 자신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상주 작가인 김성철 시인은 200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달이 기우는 비향』, 『풀밭이라는 말에서 달 내음이 난다』 등이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문학적 교류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호남문고는 오는 11월까지 유명한 작가 초청 강연, 상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책과 문학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호남문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53-9400)로 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통·감성 담은 상차림 ‘전라감영 다과상’ 운영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전주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전라감영 다과상’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13~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총 6일간 하루 2회씩(오전 11시, 오후 3시)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9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호응을 받았던 ‘전라감영 다과상(茶啖床)’의 뒤를 잇는 이번 행사는 전주의 전통문화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문화적 감성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사전 모집에서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라감영 다과상’은 1인 1상 차림의 정갈한 전통 다과를 즐기며,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문헌 속 다과 문화, 식도구, 식문화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기에 대금, 가야금 등 전통 악기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오감으로 전통을 체험하는 복합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권기수 작가 초청 특별 강연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2~4시 전주 천년한지관 1층 한지방에서 현대미술 작가 권기수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기수 작가의 예술 세계와 창작 과정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지와 현대미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대화 화가 펼쳐질 예정이다.

권 작가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다. 특히 전통 한지를 활용한 창작을 통해 새로운 미적 가치를 제시하며, 현대미술의 지평을 확장해 왔다.

행사에서는 한지가 그의 작업에 어떤 영감과 영향을 줬는지, 또 미술관을 넘어선 예술적 고민과 철학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며,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